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 수 미*
(청주대학교)

경 수 영
(청주대학교)

전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애 첫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대학생은 상당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다양한 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및 음주문제간의 관계와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14개 대학의 3, 4학년 446명이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대학생의 17.9%가 인터넷중독으로, 63.5%가 고위험음주 이상의 문제음주자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중독에는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음주문제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스트레스는 중독행동 유형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음주문제의 중독행동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요용어: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불안, 중독행동, 일반긴장이론

이 논문은 2012년도 청주대학교 연구장학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장수미, 청주대학교(jsumi@cju.ac.kr)

■ 투고일 2013.10.31 ■ 수정일: 2013.11.29 ■ 게재확정일: 2013.12.16

I. 서론

최근 청년 구직의 어려움, 실업 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와 관련된 청년 취업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대 실업률이 18.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정도별로 볼 때도 대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3), 고학력 실업자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년 구직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악화 및 고용시장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혜정, 2013). OECD(2011)는 한국 청년층의 고용실태와 관련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극심하게 대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취업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 하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휴학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42.6%로 가장 높았다(아시아경제, 2013년 2월 21일자). 취업준비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취업 경쟁과 심리사회적 어려움까지 초래되는 등(조혜정, 2013), 극심한 취업스트레스를 겪는다.

대학생은 청소년후기와 성인기 초기의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다. 이 시기의 대학생은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성인으로의 전환과정으로 정체성 확립, 이성교제를 통한 결혼의 준비,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등 복잡한 심리사회적 위기를 맞이한다(김민경, 2013). 따라서, 이러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Shannon 외(1999)는 이들이 주로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학업적, 환경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갖는데, 이중 학년에 관계없이 취업에 대한 압력, 취업을 위한 오랜 준비의 필요성, 취업을 위한 책임감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장재윤 외, 2004).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불안을 초래하며(Romano, 1992),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외로움, 긴장감, 불면증, 과도한 걱정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본다(D'Zurilla et al., 1991).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정서적 어려움까지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윤명숙·이효선, 2012; 김민경, 2013), 한국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대학생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당면해 있으며, 이중 취업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신건강의 위협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함을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집단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중독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nco et al., 2008; Wemm et al., 2013).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 설명한 Arnett(2000)는 이 시기의 대학생이 위험 감수 행동을 하기 쉬우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자기중심적이며, 부모와 사회의 통제 없이 자신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초기 성인기에 있으므로 알코올 및 약물사용 등의 중독행동, 위험한 성적행동 등에 관련되기 쉽다고 하였다(장수미, 2013 재인용). 이와 같은 Arnett의 설명은 대학생 시기의 취약한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고위험 행동(high-risk behavior)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중독행동으로 과도한 인터넷사용과 음주를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1)의 발표에 따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인터넷중독과 알코올사용장애가 가장 유병율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로 나타나, 인터넷사용과 음주문제가 대학생의 대표적인 중독행동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하도록 한다. 대학생의 다양한 생활스트레스가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Velezmoro et al., 2010; Akins & Iskender, 2011), Frangos와 Fragkos(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느끼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인터넷중독의 유의미한 요인임이 확인된 바 있어 인터넷사용에 미치는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이 검증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입학 후 갖게 되는 초고속 인터넷 접근과 같은 사회환경이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Young, 2004).

한편, 국내외적으로 대학생 집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집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Blanco et al., 2008; 고유미 외, 2009), 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음주행동을 선택한다고 보고되었다(Camatta & Nagoshi, 1995). 특히, 취업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서경현과 김성민(2009)은 대학생의 취업과 진로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문제음주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

법으로 술, 담배의 사용이 영화/음악감상, 운동, 친구/선후배와의 대화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국외에서도 실업과 총 음주소비,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Dooley & Prause, 1998; Bolton & Rodriguez, 2009).

하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모든 대학생이 중독행동을 나타내는가?”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목하고 있다. Camatta와 Nagoshi(1995)는 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Mulia 외(2008)는 개인의 생애사건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과 불안 등이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간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증상(소화기장애, 불면증 등)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직접 경로는 물론 심리적 특성이 매개하는 간접 경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매개역할을 하는 여러 심리적 특성 중 불안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Shamir(1985)에 따르면 구직활동이 상당한 불안을 동반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국내연구에서도 취업준비생에게 나타나는 주요 정서가 불안이라고 보고(박미진 외, 2009)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로서 청년 실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대학생 대부분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리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특히, 대학생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수단으로 인터넷사용과 음주와 같은 중독행동에 몰두하는 고위험집단임을 생각해볼 때,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를 탐색하고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요인이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관계의 직접효과와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취업이란 개인의 인생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김애순, 1997). 특히, 금융위기, 경기침체와 사회불안정으로 인한 고용감소 상황은 대학생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생들은 다양한 스펙쌓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취업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김민경, 2013). 구직활동 중인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아직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박미진 외, 2009).

사회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에 비해, 외국에서는 주로 대학생의 학업 및 생활 스트레스 전반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Shannon et al., 1999; Caamano-Isorna et al., 2011),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발생한 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심(Guo et al., 2011)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 모두 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수준 및 영향요인, 부정적인 정신건강 상태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의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물론 다양한 영역의 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Caamano-Isorna 외(2011)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잠재적 위험행동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재학 시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중독행동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Semaille(2009)는 청년의 경우 스트레스는 물질중독 뿐만 아니라 사이버중독, 쇼핑중독, 섹스중독과 같은 행위중독과 관련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박소희(2002)는 경기지역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인터넷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은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만제(2009)는 대학생은 입학 이후 대학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무너지고, 적성과는

상관없는 학과 선택,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대인관계,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허무감,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남진열(2008)은 대학생의 진로와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호산나(2004)는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행동문제, 대인관계 손상, 음주문제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유채영과 김혜미(2010)는 28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음주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박수현(2008)의 서울 소재 대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국외의 경우, Popovici와 French(2013)는 성인 대상 연구에서 실업이 일 년 동안의 일일 음주소비, 폭음횟수, 알코올남용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Bor 외(2013)는 경제위기 기간 동안 18세 이상 성인 2,050,431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연구에서 실업은 폭음의 가장 높은 위험요인임을 보고하였다.

2.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대학생은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졸업 이전부터 취업 걱정과 이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신현균·장재윤, 2003). 진로의 어려움은 대학생에게 스트레스 사건이 되며, 그 결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박용두·이기학, 2007). 실제로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은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 등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외, 2000). 구체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 취약한 사회기술과 높은 수준의 대인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유대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Kraut et al., 1998). 강석기와 고수현(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이 사이버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한소영 외(200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위험요인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과 불안이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대학생은 취업여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한다(Young, 2004). 즉 취업은 초기성인기

에 요구되는 필수 발달과업이지만 취업의 불확실성과 취업준비와 관련된 경험은 대학생에게 스트레스와 긴장 요인이 된다. 이때 스트레스와 긴장 요인은 불안, 우울, 죄책감, 외로움, 분노,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며(Jang & Johnson, 2003; Sigfusdottir et al., 2004), 이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중독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 중 불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Lazarus(1981)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불안이라고 하였다. Costa와 McCrae(1985)는 문제음주자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Gaher 외(2006)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음주문제와 관련이 높은 심리적 특성이었다(양난미, 2010 재인용). 박미진 외(2009)의 대학생 취업준비 경험을 살펴본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이 느끼는 주요 정서는 불안이며, 불안은 섭식 및 수면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침이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의 스트레스 혹은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관련 연구로 Liu와 Kuo(2007)는 대학생 555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불안,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인터넷중독의 취약성이 높으며, 불안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사이에서 유의미한 직·간접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국한하여 살펴본 연구가 아니므로 심각한 수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는 것은 연구의 의의를 가질 것이다.

3.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에 따르면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비행, 범죄, 약물사용 등의 부정적 행동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Agnew, 1992).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세 가지 긴장 유형을 제시하는데 첫째, 배우자, 친구의 죽음과 같은 친밀한 대상의 상실 둘째,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같은 부정적 자극의 출현 셋째, 정당한 목적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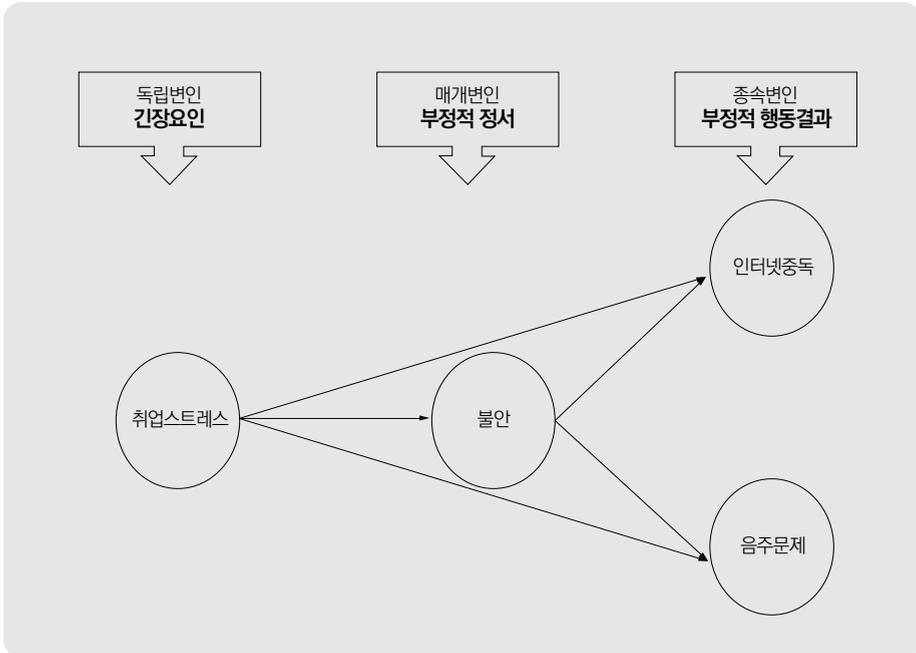
특히 실업, 이직, 경제적 성취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긴장은 세 번째 유형으로써, 부정적 행동결과를 초래함이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된 바 있다(Agnew, 1992; 2007).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Bao 외(2004)는 청소년 615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의 긴장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Capowich 외(200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긴장과 범죄 유형(심각한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간에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Jang과 Johnson(2003)은 성인을 대상으로 재정, 학교, 개인적 문제 등에서 유발된 긴장 요인과 비행(알코올 및 약물 사용 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watt 외(2007)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였고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여 일반긴장이론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연구로 문병욱과 황혜원(2006)은 청소년 38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실직, 별거, 이혼 등의 부정적 삶의 경험, 부모와 교사로 부터의 폭언과 체벌, 성적 등의 긴장요인과 다양한 비행행동(절도, 패싸움, 가출, 음주, 흡연 등)간의 관계를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연구한 바 있다. 송아영 외(2011)는 일반긴장이론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고생 2,07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직까지 일반긴장이론을 배경으로 대학생의 긴장요인과 중독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긴장요인으로 설정하고, 취업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불안)와 중독행동(인터넷, 음주)을 야기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불안, 중독행동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는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사립대학을 편의표집하였고, 지역적으로 고른 안배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서 각각 2개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캠퍼스를 방문하여 설문목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성별, 단과대학별, 학년별 등으로 일정량의 설문지를 준비하였고,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작성을 완료한 458명 중 불완전하게 기재한 12명을 제외하고, 446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취업스트레스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의 측정은 코넬대학에서 개발된 Cornell Medical Index(CMI) 72문항을 바탕으로, 배주윤(2009)이 22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은 성격, 가족, 학교, 학업스트레스로 구성된다. 각 하위변인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성격(예: 취업문제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롭다), 가족(예: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이 절실하다), 학교(예: 지방대 출신이라 취업이 더 걱정된다), 학업(예: 취업준비로 인해 학교성적이 좋지 않다) 등으로 나타난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주윤(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91로 조사되었다.

나. 불안

대학생의 불안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DASS(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21 버전을 사용하였다. Lovibond와 Lovibond(1995)가 개발한 DASS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서, 이중 불안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걱정, 공황, 전율, 입안이 메마름, 호흡곤란, 두근거림, 두려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를 '나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0점에서 '대부분 나에게 적용된다' 3점으로 표기하는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다.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이 개발한 표준화된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활용하였다. K-척도는 연령대별로 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각 15문항으로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등으로 응답하며, 총점은 60점이다. 응답 점수에 따라 고위험사용자(총점 42점 이상), 잠재적위험사용자(39이상~41점 이하), 일반사용자(38점 이하)로 분류되며, 이중 고위험사용자와 잠재적위험사용자를 인터넷중독으로 구분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인터넷중독의 하위변인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가상세계지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85이었다.

라. 음주문제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AUDIT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개발된 음주문제 선별도구로 총 10문항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되, 9, 10번 문항은 0점 '그런적 없다' 2점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다' 4점 '지난 1년간 있었다' 등으로 응답한다. 알코올사용장애와 초기 문제음주자 모두를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 하위변인은 음주빈도와 양, 의존증상, 유해음주로 구성된다(Babor et al., 1989).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이다.

마. 통제변인

통제변인의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인터넷중독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된 성별, 지역, 거주형태, 경제수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중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중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된 성적과 경제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였다(Young, 200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성적은 이전 학기 학점을, 경제수준은 학자금대출여부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고려된 성별, 지역, 거주형태 등은 기술통계 결과, 표본내 차이가 크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자료 분석 방법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증독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일반긴장이론에 적용하여 탐색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증독행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증독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 경로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방법이 된다. 통계패키지는 SPSS 20.0과 AMOS 20.0 version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특성, 변인 간 관계, 정규분포성을 알아보았고, 인터넷사용과 음주수준별로 취업스트레스와 불안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분석 및 사후검증을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간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경로별 관계 및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검증, NFI, CFI, TLI(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김계수, 2011; 우종필, 2011).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446명 중 남학생이 288명(64.6%), 여학생이 158명(35.4%)이며,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55.4%, 44.6%로 조사되었다. 자기 보고에 의한 평균 학점은 3.72이었고(4.5만점), 최대값 4.50, 최소값 2.30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기숙사, 하숙, 자취를 하는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 288명 중 군필자는 236명 이었다. 자신의 경제 상태를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가장 높았는데, 학자금 대출여부에서 대출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33.6%로 나타나 경제수준을 '하'라고 기입한 30.0%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본 조사대상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40으로 조사되었다¹⁾.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배주윤(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2.3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인터넷사용의 경우 17.9%의 조사대상자가 인터넷중독으로 진단될 수 있었으며, 음주문제 정도는 고위험음주, 알코올남용 및 의존에 해당되는 경우가 63.5%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78명(17.5%)은 진단 평가와 치료 개입이 시급한 알코올의존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빈도(%)
성별	남학생	288	64.6
	여학생	158	35.4
지역	서울경기	88	19.7
	충청남북	117	26.2
	경상남북	116	26.0
	전라남북	67	15.0
	강원	58	13.0
학년	3학년	247	55.4
	4학년	199	44.6
성적	MEAN=3.72, SD=.46, MAX=4.50, MIN=2.30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236	52.9
	기숙사, 하숙, 자취	210	47.1
근복무	만기제대	265	59.4
	면제	5	1.1
	미필	18	4.0
	해당없음(여학생)	158	35.4
경제수준	상	99	22.2
	중	213	47.8
	하	134	30.0
학자금대출	했다	150	33.6
	안했다	296	66.4
취업스트레스	MEAN=2.40, SD=.67, MAX=4.36, MIN=1.00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으로 4학년이 3학년보다($p<.05$), 경제수준을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p<.01$)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

구분		빈도(명)	빈도(%)
인터넷중독	일반사용자	366	82.1
	잠재적위험사용자	43	9.6
	고위험사용자	37	8.3
음주문제	사회적음주자	163	36.5
	고위험음주자	148	33.2
	알코올남용자	57	12.8
	알코올의존자	78	17.5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과 음주의 수준별로 취업스트레스와 불안의 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2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일반사용자와 고위험 사용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여, 인터넷중독의 고위험군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불안의 경우 일반사용자와 잠재적 위험사용자 집단, 일반사용자와 고위험사용자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여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인터넷사용 정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불안의 평균 비교

변인	일반사용자(a)	잠재적위험 사용자(b)	고위험 사용자(c)	F	Scheffe
취업스트레스	2.34(.65)	2.60(.57)	2.83(.80)	11.408***	a<c
불안	1.52(1.17)	2.00(1.21)	2.44(1.46)	11.920***	a<b a<c

***p<.001

표 3은 음주정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불안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취업스트레스는 사회적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음주문제가 심각한 집단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불안의 경우도 사회적 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간, 고위험 음주자와 알코올의존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3. 음주 정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불안의 평균 비교

변인	사회적 음주자(a)	고위험 음주자(b)	알코올 남용자(c)	알코올 의존자(d)	F	Scheffe
취업스트레스	2.28(.64)	2.39(.66)	2.52(.71)	2.57(.70)	3.978***	a<d
불안	1.32(1.11)	1.64(1.21)	1.77(1.05)	2.22(1.40)	10.413***	a,b<d

***p<.001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4는 분석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증하고자 주요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로서,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를 조사하였다. 모든 변인은 기준값(왜도의 절대값 3, 첨도의 절대값 10 이하)에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김계수, 2011).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정규분포

잠재변인	측정변인	Mean	SD	SW	KU
취업스트레스	성격	2.351	.805	.391	-.246
	가족	2.286	.908	.448	-.380
	학교	2.649	.902	-.012	-.658
	학업	2.418	.846	.284	-.066
불안	불안 1	1.112	.872	.107	-1.066
	불안 2	.637	.795	1.015	.162
	불안 3	.854	.889	.637	-.657
	불안 4	.955	.891	.471	-.791
	불안 5	.641	.811	1.149	-.658
	불안 6	.852	.880	.711	-.404
	불안 7	.706	.854	.951	-.057
인터넷중독	일상생활장애	2.149	.553	.054	-.223
	금단	1.963	.586	.270	-.394
	내성	2.982	.616	-.100	-.402
	가상세계지향	1.897	.655	.422	-.196
음주문제	빈도와양	2.063	1.053	-.239	-.794
	의존증상	.607	.945	1.554	-1.505
	유해음주	.844	.890	1.027	.408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표 5>를 보면,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방향과 대체로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Tolerance와 VIF 값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변인은 기준 점수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취업 스트 레스	성격	1										
	가족	.454***	1									
	학교	.478***	.340***	1								
	학업	.560***	.422***	.538***	1							
불안	불안1	.320***	.212***	.247***	.298***	1						
	불안2	.289***	.166***	.219***	.286***	.412***	1					
	불안3	.262***	.151**	.173***	.203***	.331***	.399***	1				
	불안4	.367***	.229***	.270***	.367***	.394***	.399***	.443***	1			
	불안5	.329***	.188***	.187***	.304***	.378***	.474***	.351***	.497***	1		
	불안6	.236***	.183***	.205***	.261***	.403***	.489***	.418***	.425***	.486***	1	
	불안7	.345***	.218***	.214***	.355***	.437***	.448***	.346***	.458***	.584***	.552***	1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179***	.171***	.194***	.257***	.152**	.137**	.187***	.223***	.183***	.207***	.172***
	금단	.243***	.152**	.185***	.251***	.178***	.171***	.212***	.235***	.244***	.205***	.206***
	내성	.174***	.154**	.149**	.216***	.089	.059	.095*	.193***	.170***	.161**	.116*
	가상세계지향	.172***	.121**	.147**	.213***	.138**	.150**	.175***	.146**	.097*	.171***	.153**
음주 문제	빈도와양	.105*	.065	.028	.041	.146**	.093	.196***	.088	.058	.087	.042
	의존증상	.110*	.088	.049	.145**	.156**	.224***	.217***	.167***	.227***	.139**	.129**
	유해음주	.189***	.115*	.104*	.210***	.199***	.225***	.282***	.208***	.231***	.206***	.171***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1						
	금단	.571***	1					
	내성	.608***	.512***	1				
	가상세계지향	.503***	.549***	.455***	1			
음주 문제	빈도와양	-.009	-.025	-.112**	-.010	1		
	의존증상	.149**	.065	.036	.114*	.488***	1	
	유해음주	.169***	.115*	.050	.143**	.607***	.694***	1

*p<.05, **p<.01, ***p<.001

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경로분석에 앞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관계 및 잠재변인 간의 관계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이다(우종필, 2011). 분석 결과<표 6>, χ^2 값은 203.453(df=129, p<.001)이었고, 카이제곱 검증이외에 다른 지수의 값은 NFI=.932, CFI=.974, TLI=.969, RMSEA=.036으로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표준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561~.946으로 양호하며(우종필, 2011),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				B	β	SE	CR
취업 스트레스	성격	←	취업스트레스	1.000	.745		
	가족	←	취업스트레스	.843	.556	.080	10.473***
	학교	←	취업스트레스	.976	.649	.081	12.105***
	학업	←	취업스트레스	1.103	.781	.080	13.872***
불안	불안 1	←	불안	1.000	.589		
	불안 2	←	불안	1.011	.654	.094	10.717***
	불안 3	←	불안	.971	.561	.101	9.596***
	불안 4	←	불안	1.154	.665	.106	10.850***
	불안 5	←	불안	1.134	.719	.099	11.415***
	불안 6	←	불안	1.196	.699	.107	11.209***
	불안 7	←	불안	1.219	.733	.105	11.561***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	인터넷중독	1.000	.790		
	금단	←	인터넷중독	1.003	.748	.068	14.665***
	내성	←	인터넷중독	1.010	.717	.071	14.148***
	가상세계지향	←	인터넷중독	.998	.667	.076	13.186***
음주문제	빈도와양	←	음주문제	1.000	.641		
	의존증상	←	음주문제	1.031	.736	.078	13.222***
	유해음주	←	음주문제	1.249	.946	.096	12.969***

$$\chi^2(df/p)=203.453***$$

df=129

NFI=.932, CFI=.974, TLI=.969, RMSEA=.036

***p<.001

4.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불안, 중독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그림 2>. 우선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chi^2=319.926$ (df=164), NFI=.900, CFI=.946, TLI=.938, RMSEA=.046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고려되는 조사대상자의 성적과 학자금 대출을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켜 중독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경로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취업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취업스트레스가 높고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일수록 음주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경로			B	β	SE	CR
인터넷중독	←	취업스트레스	.174	.265	.048	3.614***
음주문제	←	취업스트레스	.080	.079	.071	1.126
불안	←	취업스트레스	.440	.569	.053	8.310***
인터넷중독	←	불안	.165	.193	.061	2.708**
음주문제	←	불안	.376	.286	.096	3.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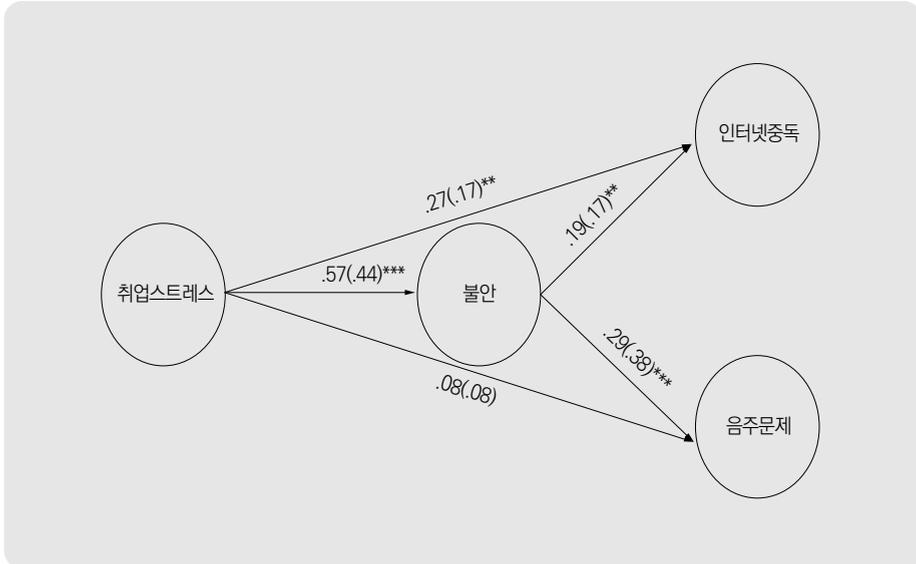
$$\chi^2(df/p)=319.926***$$

$$df=164$$

$$NFI=.900, CFI=.946, TLI=.938, RMSEA=.046$$

*p<.05, **p<.01, ***p<.001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p<.01, *p<.001,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

표 8은 취업스트레스와 증독행동 간의 직접효과와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불안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간접효과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취업스트레스→불안→인터넷중독	.265	.108	.373
유의수준	.003	.010	.004
취업스트레스→불안→음주문제	.080	.165	.245
유의수준	.255	.003	.004

V. 결론

본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청소년 집단에 국한되어 연구된 일반긴장이론의 적용 대상을 대학생에게 확대하였고,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대학생의 정신건강 측면 중 중독행동에 관심을 갖고 관련 변인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불안, 중독행동의 관계를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주요 연구결과 및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은 인터넷사용과 음주문제 등의 중독행동을 보이는 고위험집단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17.9%가 인터넷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잠재적위험사용자 및 고위험사용자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인터넷중독실태조사'에서 제시된 20대 중독률 9.0% 보다 약 두 배 더 높은 수치로서, 청년 집단 중에서도 대학생의 인터넷사용이 더 과다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움,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과 학교 내 무료 인터넷의 사용, 청소년기보다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인터넷중독의 고위험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Nalwa & Anand 2003; Chen & Peng, 2008).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비율은 63.5%로 제시되었다. 이는 '전국대학생음주실태조사'에서 대학생의 문제음주비율이 47.5%로 나타난 것보다(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1) 훨씬 높아 대학생 음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4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한 본 연구에 비해,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 63곳을 대상으로 한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조사와 모집단의 차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추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인터넷사용과 음주행동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및 불안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여, 중독행동의 고위험 집단인 경우 취업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인터넷중독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나($p < .01$), 음주문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중독행동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긴장이론에 의한 본 연구모형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로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취업을 앞둔 대부분의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은 필수적인 활동이며, 부모나 학교의 통제 없이 인터넷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Chen & Peng, 2008)는 점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터넷사용의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아 대학생의 주 인터넷사용 목적이 게임, 쇼핑 등의 오락을 위해서인지, 취업정보 검색, 시험 준비를 위한 동영상 시청이나 SNS 등을 통한 정보교환 활동인지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인터넷사용 목적이나 주로 하는 인터넷활동 등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취업스트레스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는 대학생이 발달단계적으로 고위험 음주집단임에 틀림이 없지만 입학 초기에 음주문제가 증가하다가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책임감이 음주행동을 감소시킨다는 Zucker(1986)의 설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행동 양상을 '성숙(maturing out)', '발달론적으로 제한된 알코올중독(developmentally limited alcohol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향후 중단 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는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에서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중독행동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민감성과 중독에 대한 지식 및 개입기술을 가져야 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현재 중독전문가 등 관련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 교과과정에 청소년, 여성, 노인의 중독행동뿐 아니라 취업을 앞둔 대학생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불안은 취업스트레스와 인터넷중독,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심리적 특성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의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불안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경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개입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건강하고 성공적인 대처는 중독행동이 아닌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의 불안에 개입하는 몇몇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향후 실천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실과 손정락(2011)은 마음챙김인지치료(MBCT)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인터넷중독의 개입에 효과적임을 보고했고, 동기화 중재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불안, 음주문제를 감소시켰다는 평가(이혜일, 2007)도 발표된 바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기관간의 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는 찾아가는 캠퍼스 이동상담실 등의 시

도를 하고 있어 전문기관에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취업률 증진이 매우 큰 관심 사항으로 대학별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방법, 잡매칭(job matching),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다루는 스트레스관리(stress management) 교육을 포함시킨다면 취업프로그램의 실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해대학 캠퍼스 내에서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서 매개변인으로 제시된 부정적 정서는 불안 이외에도 우울, 분노, 적대감, 좌절감 등 다양하다(Agnew, 1992, 2007; Jang & Johnson, 2003). 예컨대, 분노가 매개변인이 될 경우 폭력행동의 발생을 초래한다는 결과(Gibson et al., 2001)를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중독행동 간을 매개하는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각 특성들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부 사립대학 재학생만을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그 결과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Agnew & White, 1992),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경로를 살펴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표본의 확대 및 성별 차이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취업스트레스, 불안, 중독행동 등의 심리적 특성을 자기보고(self-report)식 설문에 의해 조사된 결과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이슈' 등에 의해 실제 자신의 상황보다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취업스트레스와 중독행동을 나타내는 대학생 경험의 다양성과 그 깊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수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정신보건사회복지, 중독분야이며, 현재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한 중독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sumi@cju.ac.kr)

경수영은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독분야이며, 현재 대학생의 중독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syms2000@hanmail.net)

참고문헌

- 강석기, 고수현(2012). 청소년 후기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사이버증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8), pp.143-168.
- 고유미, 현명호, 박지선(2009). 대학생의 음주억제와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pp.891-909.
- 김계수(2011). *조사연구방법론*.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민경(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및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2), pp.29-36.
- 김애순(1997). *청소년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혜정(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보건대학원, 경북대학교, 대구.
- 남진열(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특성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교정복지연구*, 12, pp.27-47.
- 문병욱, 황혜원(2006).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아동권리연구*, 10(2), pp.127-150.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pp.417-435.
- 박소희(2002).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건국대학교, 서울.
- 박수현(2008).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서울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 박용두, 이기학(2007). 정서지능,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9(4), pp.1041-1056.
-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배주윤(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영남대학교, 대구.
- 서경현, 김성민(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2), pp.21-34.

- 송아영, 임혜진, 왕정희(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pp.57-83.
- 신현균, 장재운(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pp.815-827.
- 아시아경제(2013). 취직이 얼마나 안되면... 대학생들의 선택. 2013년 2월21일자.
- 양난미(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pp.1707-1727.
- 우종필(2011).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채영, 김혜미(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관계 탐색에 관한 연구: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pp.137-163.
- 윤명숙, 이효선(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pp.109-137.
- 이만제(2009). 대학생 인터넷게임 중독 집단의 의사소통유형 및 문제해결 능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1), pp.108-119.
- 이혜일(2007). 동기화 중재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 불안, 알코올 기대, 금주 자기-효능감 및 문제음주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전북대학교, 전주.
- 이훈구, 김인경, 박운창(2000). 경제 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pp.87-101.
- 장수미(2013).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 구조분석: 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5(2), pp.231-254.
- 장재운,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pp.121-144.
- 정은실, 손정락(2011). 마음챙김기반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수준, 불안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pp.825-843.
- 조혜정(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1), pp.157-184.
- 통계청(2013). 2013년 4월 고용동향.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11).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2012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한소영, 이민규, 신희천(2005). 남녀 대학생의 음주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4), pp.1003-1019.
- 호산나(2004).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충남대학교, 대전.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pp.47-87.
- Agnew, R.(2007).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pp.319-361.
- Agnew, R., White, R.(1992).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0(1), pp.43-71.
- Akins, S., Iskender, M.(2011). Internet addi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3(1), pp.138-148.
- Arnett, J.(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pp.469-480. 장수미(2013)에서 재인용.
- Babor, T., Fuente, J., Saunders, J., Grant, M. (1989).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health care*. WHO/MNH/DAT,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Bao, W., Haas, A., Pi, Y. (2004). Life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delinquency: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 J Offender Ther Comp Criminol*, 48, pp.281-297.
- Blanco, C., Okuda, M., Wright, C., Hasin, D., Grant, B., Liu, S. (2008).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non-college attending pe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5, pp.429-437.
- Bolton, K., Rodriguez E. (2009). Smoking, drinking and body weight after re-employment: Does unemployment experience and compensation make a

- difference? *BMC Public Health*, 6(77), pp.1-12
- Bor, J., Basu, S., Coutts, A., McKee, M., Stuckler, S. (2013). Alcohol use during the great recession of 2008-2009. *Alcohol and Alcoholism*, 48(3), pp.343-348.
- Caamano-Isorna, F., Mota, N., Crego, A., Corral, M., Holguin, S., Cadaveira, F. (2011). Consumption of medicines, alcohol, tobacco and cannabis among university students: A 2-years follow-up.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6, pp.247-252.
- Camatta, D., Nagoshi, T. (1995). Stress,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1), pp.142-146.
- Capowich, .G., Mazerolleb, P., Piquero, A. (2001). General Strain Theory, situational anger, and social networks: An assessment of conditioning influenc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9(5), pp.445-461.
- Chen, Y., Peng S. (2008). University students' internet use and its relationships with academic perform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elf-evalua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4), pp.467-469.
- Costa, T., McCrae,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ooley, D., Prause, J. (1998). Underemployment and alcohol misuse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9(6), pp.669-680.
- D'Zurilla. T. J., Thomas, J., Sheedy, C. F., Collette F. (1991).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ubsequent level of psychological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5), pp.841-846.
- Frangos, C., Fragkos, K. (2011). Psychologic predictors and epidemiology of internet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reece. *European Psychiatry*, 26(Supplement 1), pp.1-40.
- Gaher, R., Simos, J., Jacobs, G., Meyer, D., Johnson-Jimenez, E. (2006). Coping motives and trait negative affect: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models

of alcohol problems among American Red Cross disaster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ddictive Behaviors*, 31(8), pp.1319-1330. 양미경(2010)에서 재인용.

- Gibson, L., Swatt, M., Jolicoeur, J. (2001). Assessing the generality of General Strain Theory: The relationship among occupational stress experienced by male police officers and domestic forms of violence.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24, pp.29-57.
- Guo, Y., Wang, S., Johnson, V., Diaz, M. (2011). College students' stress under current economic downturn. *College Student Journal*, 45(3), pp.536-542.
- Jang, J., Johnson R. (2003).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deviant coping among African Americans: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1), pp.79-105.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pp.1017-1031.
- Lazarus,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Eisdorfer, C., Cohen, D., Kleinman., A., Maxim, P. (Eds.), NY: Spectrum, pp.174-214.
- Liu, C., Kuo, F. (2007).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through the lens of the interpersonal theory.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0(6), pp.99-804.
- Lovibond. P., Lovibond S.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pp.335-343.
- Mulia, N., Schmidt, L., Bond, J., Jacobs, L., Korcha. R. (2008).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 drinking among women in poverty. *Addiction*, 103(8), pp.1283-1293.
- Nalwa, K., Anand, P. (2003).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A cause of concer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6(6), pp.653-656.
- OECD (2011).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 Popovici, L., French, M. (2013). Does unemployment lead to greater alcohol consumption?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52(2), pp.444-466.
- Romano, L. (1992).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stress manage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71, pp.199-202.
- Semaille, P. (2009). The new types of addiction. *Revue Medicale de Bruxelles*, 30, pp.335-357.
- Sigfusdottir, D., Farkas, G., Silver, E. (2004). The role of depressed mood and ang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flict and delinquent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pp.509-522.
- Shamir, B. (1985). Sex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to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A question of commitment alternatives or finance? *Social Problems*, 31, pp.67-79.
- Shannon, R., Bradley, N., Teresa, M. (1999) Sources of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2), pp.312-317.
- Swatt, M., Gibsonb, C., Piquero., N. (2007). Exploring the utility of general strain theory in explaining problematic alcohol consumption by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6), pp.596-611.
- Velezmoro, R., Lacefield, K., Roberti, J. (2010) Perceived stress, sensation seeking, and college students'abuse of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pp.1526-1530.
- Wemm, S., Fanean, A., Baker, A., Blough, R., Mewaldt, S., Bardi, M. (2013). Problematic drinking and physiological response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Alcohol*, 47, pp.149-157.
- Young, S. (2004). Internet addiction: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8, pp.402-415.
- Zucker, A. (1986). The four alcoholisms: A developmental account of the etiologic proces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4, pp.27-83.

The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Jang, Soo Mi

(Cheongju University)

Kyoung, Soo Young

(Cheongju University)

While unemployment issue arising from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unstable job market is regarded as social problem, college students are under heavy job-seeking stress so that the negative psychosocial consequences happened to them. In this study,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was tested empiricall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46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14 universities in Korea.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ed that 17.9% of participants have the internet addiction and 63.5% of participants are regarded as problem drinkers. Secondly, job-seeking stres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but it shows a non-significant effects on drinking problem. Thirdly, mediating effect of anxiety showed in this mod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job-seeking stress and addictive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outlined.

Keywords: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Anxiety, Addictive Behaviors, General Strain Theory